

## 치 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제7대 설동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묘년 송년법회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은 멈추어 있지 않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사물마저 시간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주만물이 순환의 진리에 어김이 없듯이 공무원불자연합회 또한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환의 변화가 제자리의 담보가 아니라 튼튼하고 충실하게 진일보하는 변화이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설동근 회장님의 취임에 맞추어 공무원불자연합회가 의미있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일신우일신 할 것으로 크게 기대합니다.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국민들과 마주하면서 나라의 행정을 올곧게 형성하는 근간입니다. 모든 일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두두물물이 조화를 이루며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며, 국민들은 평화롭고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막히고 분쟁하며 불화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나’라는 아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와 연기를 천명하여 ‘나’를 비우고 서로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갈등과 번뇌를 소멸하여 화합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깊은 강물이 흐르게 하는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지름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공무원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국토로 나아가는 진정한 동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마주하면서 얼마만큼 불교의 사상과 가치관을 지니고 공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불국토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불자 여러분들은 강한 자긍심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기쁘고, 그 법에 따라 일상에서 정진하는 도반들을 만나서 반가우며, 부처님 법으로 풍요롭게 이끄는 일은 더욱 뜻 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틀림없이 진리가 전개된다는 선조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이러한 공심과 원력으로 공무에 임한다면 소외되지 않는 삶, 자신감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어진 소임에 만족하여 충실하면서 국민을 위하고 또 대신하면서 진력을 다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값진 결실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물론 국민들의 행복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